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03.31)

[목차]

1. 2011년 2분기 수출전망 1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4

1. 2011년 2분기 수출전망

□ (총괄) 2011년 2분기 수출 증가 예상

-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57.5, 前 분기(52.7) 대비 4.8p 상승
 - '09년 4분기 지수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단, 설문시점이 일본지진의 피해 규모가 충분히 파악되기 전으로 실제 수출증가율은 지수 상승폭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낮을 전망
 - * 현지 사정 악화로 도쿄, 트리폴리 소재 바이어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외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전분기대비 증감(p)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수출선행지수	50.7	51.6	53.1	52.8	52.7	57.5	4.8

□ (상승요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력제품 수출이 고르게 증가할 전망

- MENA사태, 일본 대지진 등 여파로 바이어들이 예측하는 수입국 경기지수는 '11년 1분기(59.6)보다 2.2p 하락한 57.4 기록
 - 다국적軍의 리비아 공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2분기에 실제 바이어들이 판단하는 수입국 경기는 설문시점에 나타난 것보다 악화될 가능성 내포
- 가격경쟁력 지수(53.6)와 품질경쟁력 지수(57.7)는 전 분기 대비 각각 0.5p, 0.7p 소폭 상승, 한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 추이를 반영
 - 2010년 3분기 이후 향상되고 있는 가격경쟁력은 한국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원화강세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분석
 -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생산비(임금) 상승, 일본의 통화가치 상승 등도 한국 제품 가격경쟁력 향상의 요인
 - 품질경쟁력 지수도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58.4를 기록

- 종합적으로 볼 때 2분기 수출증가는 세계경기의 상승세에 따른 측면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 주력제품 수출이 확대 전망
 - 그러나 일본産 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원활한 제품생산 및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
 - * 2010년 한국은 전체 부품, 소재 수입액 중 25%를 일본으로부터 수입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보조지수 추이

구분	'10.2분기	'10.3분기	'10.4분기	'11.1분기	'11.2분기	증감(p)
수입국경기 지수	59.4	61.2	58.2	59.6	57.4	-2.2
가격경쟁력 지수	49.8	49.2	51.4	53.1	53.6	0.5
품질경쟁력 지수	59.2	56.8	58.2	57.7	58.4	0.7

□ (지역별) 對선진국 수출은 큰 폭 증가세, 對신흥국 수출은 보합세 전망

- 선진시장 : 북미(62.8), 유럽(58.1), 일본(57.2) 등에서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우리수출 확대를 견인 예상
 - 북미, 유럽 시장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지진피해로 한국 제품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신흥시장 : 중동아(58.0), 아시아(57.3), 중국(56.0) 지역은 전 분기 대비 상승하고, 중남미(55.1), CIS(51.3) 지역 지수는 소폭 하락
 - 리비아사태 악화로 對중동아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지역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구분	아시아	중남미	일본	중국	중동아	북미	유럽	CIS
'10. 3분기	60.9	56.7	50.9	55.3	49.6	50.2	48.8	56.8
'10. 4분기	54.1	51.4	52.3	55.9	54.0	50.8	49.9	52.9
'11. 1분기	51.8	59.1	46.7	53.5	49.4	53.7	52.7	53.9
'11. 2분기	57.3	55.1	57.2	56.0	58.0	62.8	58.1	51.3

□ (품목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수출 증가 예상

- 자동차(70.3) 및 자동차부품(61.4)의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석유화학(60.5), 가전(60.4) 등도 증가기대
 - 일본 지진피해 확산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단, LCD(48.5)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품목 분류 중 '식품류'는 2011년 2분기 설문조사에서 신설

품목별 수출선행지수 추이

품목	'11. 1분기	'11. 2분기	품목	'11. 1분기	'11. 2분기
무선통신	60.5	60.7	일반기계	50.9	53.3
반도체	48.0	59.0	철강	49.5	52.9
LCD	53.3	48.5	석유화학	54.4	60.5
가전	52.0	60.4	석유제품	54.5	56.7
자동차	52.9	70.3	섬유류	54.4	54.6
자동차부품	54.4	61.4	식품류	-	56.1
컴퓨터	51.0	51.4	기타	47.0	57.2

2.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개요

- (총괄) 해외 바이어 대상 오더금액 증감여부를 지수화하여 산출
 - 조사대상 바이어(2011년 2분기 1,980명, 3월 10일~18일)는 해당분기 오더금액이 前 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증가·유지·감소 중 택일
 - 오더금액 증감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 등에 대해서도 설문
- (산출) 오더금액 증가 및 유지 바이어 비중을 바탕으로 지수산출
 - 산출식 : $(\text{오더금액 증가 바이어 비중} + \text{유지 바이어 비중} \times 0.5) \times 100$
 - * 증감원인 분석을 위해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입국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수 산출
 - 지수해석 : 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50 이상이면 전분기 대비 수출경기 호조, 50미만이면 수출경기 부진을 의미

지수산출 방식 변경사항 및 사유

- (기존) 오더금액,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출국 경기 등 4개 개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산출
 - 산출식: $(\text{오더금액지수} \times 0.5) + (\text{가격경쟁력지수} \times 0.1) + (\text{품질경쟁력지수} \times 0.1) + (\text{수출국경기지수} \times 0.3)$
- (변경) 2010년 2분기부터는 오더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출선행지수 산출
 - *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및 수출국경기 지수는 보조지수로 활용
- (변경사유) 수입오더의 계절적 요인 왜곡현상 시정
 - '10년 1분기 수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전기 대비 감소($\Delta 2.2\%$)하였으나, 종합지수는 54.6으로 전분기(54.0) 대비 증가(다만, 오더금액지수는 감소 : 51.0 → 50.7)
 - * 이는 오더금액지수 외에 다른 3개 개별지수(가중치 50%)가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 이러한 계절적 요인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지수의 수출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더금액만을 기준으로 지수 산출